

이 주의 투자 포인트 (2월 9일 주)

증시 급등락 이후 시장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, 연준이 주목하는 고용과 물가 흐름을 가능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된다. 여기에 더해 경기 분위기를 반영하는 대형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, 그리고 시장 내 유동성, 즉 통화량에 대한センチ먼트를 가능할 수 있는 주요 핀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겹친 한 주다. **결론적으로, 시장에서 금리 인하 지연 지속 혹은 가속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될 수 있어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판단한다.**

1. 경제지표와 소비재 실적: 고용보다 CPI, 실적보다 '소비 양극화'

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- 다가오는 주에는 연기되었던 미국의 공식 노동시장 및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며, 두 지표 모두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- 연방정부 섯다운으로 인해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는 2월 6일에서 2월 11일로 연기되었고, 인플레이션(CPI) 발표는 2월 13일로 미뤄졌다.
 - 비농업 고용 증가폭은 12월 5만 명에서 1월 7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, 실업률은 4.4%로 유지될 전망이다. 이러한 고용 수준은 정책당국 내 완화적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은 있으나, 단기적으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기존 기대를 바꿀 만한 수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.
- 오히려 CPI 인플레이션 지표는 12월에 각각 2.7%와 2.6%를 기록한 헤드라인 및 근원 물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,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 - 물가가 뚜렷하게 둔화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. 즉, 다시 금 CPI 지표에 집중이 모일 것으로 판단한다.
- 소비재의 경우 코카콜라와 맥도날드의 실적 발표 및 어닝콜을 통해 소득 불균형과 소비 양극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나 체력을 판단하는 실적 발표가 아니라, 현재 미국 및 글로벌 소비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불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.
 - 맥도날드: 지난 어닝콜에서 저소득층 고객의 트래픽이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했으며, 이러한 압박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
 - 코카콜라: 소득 계층 간 소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, 특히 중저소득층의 가계 예산 압박이 여전하다고 진단

2. 핀테크 실적: 금리 인하 지연 지속에 따른 영향력 점검

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- 2026년 초 새로운 연준 의장의 등장과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지는 등 금리 환경 변화가 포착되는 가운데, 수익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두 개의 대

표적인 핀테크 기업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.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다.

-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'금리 인하 지연'은 두 플랫폼에 동시에 기회이자 리스크이다. 경영진이 어느 쪽으로 무게를 더 싣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.
 - 이자 수익(긍정); 연준이 2026년 1월 기준금리를 3.5%~3.75% 범위에서 동결함에 따라, 고객 예치금 및 마진 용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더 견고하게 유지될 전망
 - 위험 자산 투자 심리 위축 (부정):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경우 시장 유동성이 제한되며, 주식과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억제될 가능성

Compliance Note

-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